

2022년 11월 13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07편 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589(통308)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시편 65편 8~13절(구약p.845)

8.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9.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12.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13.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 ◎ 말씀선포 /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입니다. 영국의 청도교들이 5월의 꽃의 뜻을 가진 메이플라워란 배를 타고 죽음의 사투 끝에 미 대륙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뿌린 곡식을 추수하여 감사절을 지킨 것은 성경적이었으며 저들의 감사를 한층 더한 사건이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만들 수도 없고 자라게도 못합니다. 오직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을 할 뿐 결실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고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며 협력하여 선이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 1.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본문 9절에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제는 아담의 후손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민족은 고유의 명절에 햇곡식과 과일을 잘 차려 조상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따뜻한 햇볕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분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조상이 아니라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감사에 기적이 있고 감사할 때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감사가 우리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특별히 신약은 “축사 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만 명이 모인 이곳에 먹을 것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하셨습니다. 여기 “축사” 라는 말은 “울로게센” 인데 이는 “찬송하다, 경외하다, 감사하다. 축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 것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남자만 오천 명이 먹고 없는 열두 바구니나 남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찬송이라는 헬라어는 “뤼논” 인데 이는 감사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뜻하는 말입니다.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자유를 잃고 괴로움이 있는 바울과 실라가 무슨 감사의 제목 있어 찬양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옥의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며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어 쉬게 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 이러한 감사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3절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했고, 시편 136편 25절에서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으며, 레위기 22장 29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귀한 절기를 지킬 때에는 기쁨과 온 정성을 바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감사의 절기를 지시며 실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모습만 있고 마음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오직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기쁨으로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부담되고, 그저 내 위치와 상황에서 보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자이며 직책이 있고, 하라고 하니 하는 영혼 없는 행함이 아니라 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이며 정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우리의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에 힘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많은 수확을 올리는 해로 축복이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65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 폐 회 / 주기도문